

경력지향성과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유연호(국제교류센터 센터장) *

양동우(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벤처경영학과 교수)**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으로서 경력지향성과 창업지원프로그램 참가로서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연구모형을 구축하고 정립된 연구가설을 중소기업청의 지원(2006년 기준)으로 창업강좌가 개설된 대학교와 개설되지 않은 대학교를 서울과 지방 그리고 경상계열과 공학계열로 나누어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지향성은 창업지원프로그램 참가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력지향성 중에서 자율지향성, 기술지향성, 관리지향성, 사업지향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 안정지향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셋째, 창업지원프로그램 참가는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주제어: 경력지향성, 창업지원프로그램, 창업의지

1. 서론

글로벌 경쟁시대의 다문화환경에 살고 있는 대학생들이 졸업을 전후하여 사회에 진출하는 대표적인 형태는 취업 아니면 창업이다. 개인적 특성인 경력지향성은 대학생들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의 준비단계인 창업의지

* 국제교류센터 센터장, top1234@empal.com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벤처경영학과 교수, dwyang@hoseo.edu

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창업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각 대학교별로 차별화된 창업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대학 졸업 전후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창업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창업동기부여를 주는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창업교육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전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U.S.News & World Report의 평가에서 창업(entrepreneurship)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미국의 Babson College의 창업지원프로그램을 기초로 연구하였다. 미국의 성공적인 창업지원프로그램은 창업문화의 형성으로 연결되어 미국은 지난 20년간 약 3,6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발생되었다(Timmons, 1994 ; 장대성, 2000). 미국에서는 대학은 물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나이와 학력에 제한 없이 창업을 장려하고 있다(장대성, 2000). 창업의지는 창업에 대한 행위적 태도를 의미하며, 창업이라는 긴 과정의 첫 단계이며, 개인의 태도와 경험을 창업이라는 행동으로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경력지향성(안정·자율·기술·관리·사업지향성)과 창업지원프로그램 참가요인인 창업지원프로그램(창업강좌, 창업동아리, 창업경연대회, 창업보육센터, 창업자금, 창업정보센터, 창업자문단, 창업연구소, 창업한 졸업생 네트워크)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실증분석을 함으로써 어떠한 요인들이 향후 잠재적 창업집단(Scott & Twomey, 1988)인 대학생들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 연구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2.1 경력지향성(Career Orientation)

경력지향성은 자신의 재능, 자신의 욕구와 동기, 자신의 태도와 가치 등이 어우러져 형성된 직업과 관련된 자기이미지로서, 여러 가지 삶의 경험과 다른 사람들로로부터의 피드백 등을 통해서 형성된다(Schein, 1978). 사람들은 자신의 이미지와 일치하는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거나, 자신의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는 직업이나 직장을 가진 경우 일치하는 직업이나 직장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윤방섭, 2004). 그러므로 경력지향성은 자신이 인지한 자신의 이미지가 정확한 것인가의 여부를 떠나 경력 선택에

영향을 줄 것이다(Schein, 1975). 윤방섭(2004)은 Schein(1978)가 제시한 경력 달을 근거로 실증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윤방섭이 제시한 안정지향성, 자율지향성, 기술지향성, 관리지향성, 사업지향성의 유형으로 나누어 실증분석 하였다.

안정지향성(security orientation)을 지닌 사람들은 직장 안정성과 장기적 안정성을 가져다주는 조직에 남아 있기를 원하며, 혹 조직이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조직에 의해 자유가 손상되더라도 현재의 조직을 떠나려 하지 않는다(Schein, 1978). 그들은 직장 안정성과 안정된 미래를 얻기 위해 조직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며(Kolvereid, 1996), 조직의 가치와 규범에 순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안정 지향성을 지닌 사람들은 위험이 수반되는 창업에 대한 의지가 낮을 것으로 기대된다(윤방섭, 2004).

자율지향성(autonomy orientation)을 지닌 사람은 조직의 규정과 상사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며(Schein, 1990),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하는 욕구가 크므로(Feldman & Bolion, 2000), 자기가 원하는 일을 자기의 방식대로 수행할 수 있는 직무환경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자율 지향성을 지닌 사람은 임금근로자로서 타인의 조직에 억매어 근무하기보다는 전통적 조직생활에서는 얻기 힘든 자유와 자율을 제공해줄 수 있는 창업에 대한 의지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윤방섭, 2004).

기술지향성(technical competence orientation)을 지닌 사람들은 특정한 기술 역량을 중심으로 경력을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다(Schein, 1978). 이들은 특정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경력에 관심이 많으므로, 일반 관리직보다 전문기술직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으며, 관리자로서 승진하기보다는 자신의 전문적 영역 내에서 승진하기를 바란다(Feldman, 1988). 이들은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라면, 창업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윤방섭, 2004).

관리지향성(managerial competence orientation)을 지닌 사람들은 조직에서 권한, 권력,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반 관리자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통해 조직에서 업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Schein, 1978). 이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관리 책임의 크기로 자신의 성공을 평가한다. 그러므로 관리 지향성을 지닌 사람들은 일차적으로 임금 근로자로서 관리자의 경력을 추구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직장에서 관리자로서의 지속적인 승진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창업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사업 속에서 관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선호할 가능성도 있다(윤방섭, 2004).

사업지향성(entrepreneurial creativity orientation)을 지닌 사람들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욕구를 지닌 사람들이다(Schein, 1978). 이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창의성을 발휘하고 싶어서 창업을 통해 자기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

향이 있다(Feldman & Bolion, 2000). 과거 연구에 의하면 사업 지향성을 지닌 사람은 매우 적지만(Igbaria, Greenhaus, & Parasuraman, 1991), 사업 지향성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창의적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는 창업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다(윤방섭, 2004).

결과적으로 사업지향성을 지닌 사람과 자율지향성을 지닌 사람은 창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을 것이며, 안정지향성을 지닌 사람은 창업의지가 낮을 것으로 기대된다(윤방섭, 2004).

가설 1 : 개인의 경력지향성은 창업지원프로그램 참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개인의 경력지향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창업지원프로그램(Entrepreneurial Support Program)

창업지원프로그램은 단순한 지식이나 절차 주입식이 아닌 핵심 성공요인을 구체화하여 점진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Gist, 1987). 그러므로 창업에 대한 체계적인 창업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대학은 2008년 U.S.News & World Report의 평가에서 창업(entrepreneurship)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1919년에 설립된 Babson College이며, 창업지원프로그램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Babson College의 창업지원프로그램의 특징은 창업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창업교육과 병행하여, Co-curricular Programs, Entrepreneurship Events, Entrepreneurship Research, Affinity Groups 등과 같은 창업지원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실질적인 창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에서 창업 열기를 확산시켜 창업분위기를 조성을 통해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고 성공한 창업자들은 대학에 발전기금 및 기부금을 전달하여 대학재정과 교육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창업지원프로그램 참가는 참여자인 대학생들에게 창업동기부여와 창업관련 정보와 지식의 축적을 통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1> Babson College의 창업지원프로그램

창업지원프로그램	명칭
Co-curricular Programs 강좌병행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udent organizations -Babson Chamber of Commerce, -Babson Entrepreneurship Club -Babson Entrepreneurial Exchange, -E-Tower at Babson · Hatcheries, · Brain Trust, · Seed Fund · Babson Entrepreneurial Review · Entrepreneurial Programs and Prizes -The Frederic C. & Jane Hamilton Entrepreneurial Scholarship Program, -The Gloria W. Appel Memorial Scholarship Fund -The Price-Babson Fellowship
Entrepreneurship Events 창업경연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cket Pitch, · Business Plan Competition -John H. Muller Competition, -Alumni Evaluators -Douglass Foundation Competition
Entrepreneurship Research 창업연구소와 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thur M. Blank Center for Entrepreneurship · Center for Women's Leadership · Innovation & Corporate Entrepreneurship Research · W. F. Glavin Center for Global Management · Babson/HBCU Entrepreneurship Consortium · Babson College Entrepreneurship Research
Affinity Groups 졸업생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rporate Affinity Groups, · Other Affinity Groups · Career Affinity Groups

자료 : www.babson.edu

가설 3 : 창업지원프로그램 참가는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창업의지(Entrepreneurial Intention)

창업의지는 기업의 설립과 관련한 첫 번째 단계로 본다(박시사 & 강성일, 2007). 즉 창업의지는 신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토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창업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된다(Veciana, Alponete & Urbano,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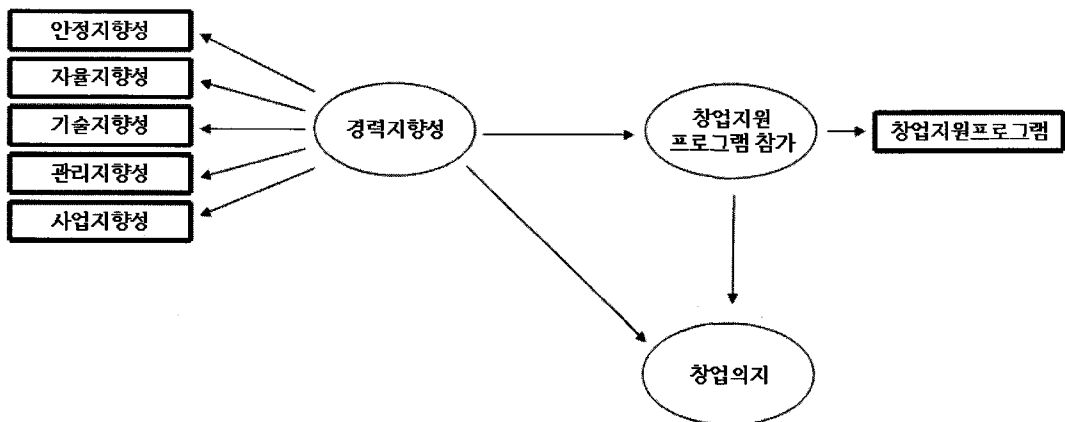
창업의지의 중요성은 잠재적 창업가들이 국가나 조직의 경제적 활력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Shapero(1982)는 국가나 지역 경제 또는 조직이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회복력(resilience)과 자기쇄신적(self-renewing) 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창업의지를 갖고 있는 잠재적 창업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개인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기회가 주어지면 창업가적 기질을 발휘하여 창업관련 행동을 주도하는 잠재적 창업자들이 충분히 존재할 때 지역, 조직 그리고 집단 등이

탄력성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이지우, 1999). Cooper & Dunkelberg(1987)는 890명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50%는 적어도 부모 중 1명이상이 자기사업을 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Crant(1996)도 경영학과 학부생과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창업자의 부모의 존재여부가 창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부모의 성공적 역할모델의 존재는 창업의지를 높여줄 것이다(윤방섭, 2004).

창업의지가 있고 창업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창업은 20대 후반과 30대 중반까지의 전문교육을 받은 혁신적인 사람들에게서 많이 성취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에게 창업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면 성공적인 벤처기업의 수가 증가하여 21세기 국가산업 경쟁력의 든든한 기초가 될 것이다(Timmons, 1994, 장대성, 2000).

2.4 연구모형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실증분석을 함으로써 어떠한 요인들이 향후 잠재적 창업자들(즉, 대학생들)의 창업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각 대학교별로 차별화된 창업지원프로그램을 구상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선행연구와 가설에 따라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후 자료수집 방법 및 측정도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III. 연구방법

3.1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을 위하여 창업의지와 관련된 변수들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을 만들었으며, 가설검증을 위해 실증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증조사를 위한 자료수집에서 설문조사는 중소기업청 지원(2006년도 기준)으로 창업강좌가 개설된 대학교와 개설되지 않은 대학교를 서울소재대학교와 지방소재대학교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서울소재대학교는 중소기업청 지원 대학인 숭실대학교와 지원을 받지 않은 중앙대학교이며, 지방소재대학교는 중소기업청 지원을 받은 호서대학교와 지원을 받지 않은 백석대학교로 나누어 경상계열과 공학계열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각각 50부씩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08년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였으며, 총 400부를 배부하여 399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399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수와 척도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것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창업지원프로그램 관련 문항을 제외하고 모두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각 측정항목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문항

변수	조작적 정의와 측정문항	
경력 지향성 (15)	· 창업의지의 결정요인인 개인적 특성인 경력지향성 즉, 관리지향성, 기술지향성, 사업지향성, 안정지향성, 자율지향성	
	관리지향성 (3)	(1)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 감독, 통합 (2)계층의 사람들 관리, 감독, 통제 (3)전체조직의 책임
	기술지향성 (3)	(1)내 전문분야 선호 (2)경력을 통해 내 전문분야 추구 (3)특정한 기술(기능)분야의 경력
	사업지향성 (3)	(1)내 사업의 아이디어 (2)내 사업을 시작하고 구축하는 꿈 (3)사업 활동은 내 경력
	안정지향성 (3)	(1)안정된 고용, 봉급, 퇴직 (2)장기적인 고용안정 보장 조직 (3)장기고용 보장 조직
	자율지향성 (3)	(1)조직의 규정이 아닌 내 방법이 중요 (2)자유로운 조직의 경력 (3)일과시간의 자유와 자율
창업지원 프로그램(18)	· 창업동기부여를 심어 주기 위한 창업지원프로그램	
	(1)~(2)창업강좌 (3)~(4)창업동아리 (5)~(6)창업경연대회 (7)~(8)창업보육센터 (9)~(10)창업자금 (11)~(12)창업정보센터 (13)~(14)창업자문단 (15)~(16)창업관련연구소 (17)~(18)창업 졸업생 네트워크	
창업의지 (3)	· 대학의 졸업을 전후로 한 창업과 업체 인수와 운영의 의지	
	(1)대학졸업 전후로 창업 (2)장래에 자신 소유 업체 설립 또는 인수 운영 (3)업체 소유 및 운영	

Schein(1978)
Feldman(1988)
Igbaria et. al.(1991)
Kolvereid(1996)
Feldman · Bolion
(2000)
윤방섭(2004)

Gist(1987)

Timmons(1994)
Crant(1996)
Veciana et. al.(2005)
이지우(1999)
장대성(2000)
윤방섭(2004)
박시사 외(2007)

IV. 실증분석 및 결과

4.1 연구표본의 일반적 사항

총 400부를 배부하여 399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399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성별의 경우, 남자가 305명(76.4%), 여자가 92(23.1%) 그리고 무응답 2명(0.5%)이었고, 3학년 학생이 202명(50.6%), 4학년 학생이 195명(48.9%), 무응답 2명(0.5%), 전공계열은 경상계열이 204명(51.1%), 공학계열이 190명(47.6), 무응답 5명(1.3%)이며, 거주지역은 서울 199명(49.9%), 수도권 140명(35.1%), 지방 59명(14.8%)으로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며, 창업지원프로그램의 이용경험은 없음이 342명(85.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1번이 28명(7.0%)이었으며, 창업경험은 없음이 388명(9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표 3>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변인	범주	빈도	비율(%)	변인	범주	빈도	비율(%)	
성별	남자	305	76.4	창업 지원 프로 그램의 이용 경험	1번	28	7.0	
	여자	92	23.1		2번	13	3.3	
	무응답	2	0.5		3번	9	2.3	
학년	3학년	202	50.6		4번	1	0.3	
	4학년	195	48.9		5번	5	1.3	
	무응답	2	0.5		없음	342	85.7	
전공 계열	경상계열	204	51.1		창업 경험	무응답	1	0.3
	공학계열	190	47.6			있음	10	2.5
	무응답	5	1.3			없음	388	97.2
거주 지역	서울	199	49.9	무응답		1	0.3	
	수도권	140	35.1					
	지방	59	14.8					
	무응답	1	0.3					

4.2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는 제시된 모형과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개별 가설들을 각각 검증하는 대신에 전체적인 구조모형을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사용하였으며, 자료처리를 위하여 회수된 설문지를 통계처리 할 수 있도록 코딩작업을 실시하고, 입력된 데이터는 SPSS 14.0과 Lisr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방법을 사용하였고, 신뢰도 검증은 문항 간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확인하는 Ch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여러 요인들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중공선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결과는 신뢰도 계수는 안정지향성 $\alpha=.835$, 자율지향성 $\alpha=.834$, 기술지향성 $\alpha=.779$, 관리지향성 $\alpha=.849$, 사업지향성 $\alpha=.847$, 창업지원프로그램 참가 $\alpha=.934$, 창업의지 $\alpha=.808$ 로 나타냈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변수	문항	요인	고유값	총분산비	신뢰도계수
안정지향성 (A1)	A11	.808	2.257	75.239	.835
	A12	.915			
	A13	.876			
자율지향성 (A2)	A21	.854	2.253	75.115	.834
	A22	.885			
	A23	.861			
기술지향성 (A3)	A31	.804	2.101	70.025	.779
	A32	.902			
	A33	.862			
관리지향성 (A4)	A41	.871	2.315	77.151	.849
	A42	.893			
	A43	.810			
사업지향성 (A5)	A51	.894	2.300	76.679	.847
	A52	.905			
	A53	.826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가 (B1)	B11	.747	5.908	65.643	.934
	B12	.775			
	B13	.784			
	B14	.781			
	B15	.776			
	B16	.873			
	B17	.854			
	B18	.864			
	B19	.825			
창업의지 (C1)	C11	.844	2.179	72.638	.808
	C12	.902			
	C13	.807			

4.3 측정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EM :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통해 전반적인 모형의 적합도 모수들을 추정하였다. 구조모형의 모수는 최대우도추정방법(ML)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전반적 적합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측정치는 χ^2 통계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구조방정식모형의 적

합도 평가에 이용되는 지수 가운데 유일하게 통계적 유의성 검증의 대상이 되는 측정치이다. 이 통계량은 자료에 대한 정규분포를 토대로 계산되며, χ^2 값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적합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배병렬, 2005). χ^2 이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유일의 지표는 아니다. 다른 적합지수를 나타내는 지표도 확인해야한다(김계수, 2006).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합도 검정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모델의 전반적 적합도 평가 지표인 χ^2 (카이자승), GFI(적합도지수), AGFI(조정된 적합지수), NFI(표준적합지수), NNFI(비표준적합지수)를 사용하였다. χ^2 값이 작고 확률값(p)이 크면($p>.05$) 모델이 적합하다고 평가하고, 반대로 χ^2 값이 크고 확률값(p)이 작으면($p<.05$) 모델이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측정모형에 대한 계수추정치들의 t-값이 1.96보다 크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이론에 근거한 기초모형의 적합도는 다음의 <표 5>와 같으며, $\chi^2 = 231.030$ ($p=.000$), GFI=.907, AGFI=.851, NFI=.874, NNFI=.864로 구조모형을 분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연구모형의 적합도 평가

모형구분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χ^2	p	GFI	AGFI	NFI	NNFI
기초모형	231.030	.000	.907	.851	.874	.864

측정모형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의 <표 6>과 같으며, 경력지향성의 자율지향성(.390, $t=7.009$), 기술지향성(.181, $t=3.180$), 관리지향성(.426, $t=7.689$), 사업지향성(.883, $t=14.878$)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안정지향성(.086, $t=1.514$)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측정모형에 대한 추정치

잠재변수	관찰변수	추정치	표준추정치	표준오차	t-값	SMC(R^2)
경력지향성	안정지향성	.095	.086	.063	1.514	.007
	자율지향성	.428	.390	.061	7.009	.152
	기술지향성	.197	.181	.062	3.180	.033
	관리지향성	.476	.426	.062	7.689	.181
	사업지향성	1.145	.883	.077	14.878	.780
창업지원프로그램 참가	창업지원프로그램	1.229	1.000	-	-	1.000
창업의지	창업의지요인	1.351	1.000	-	-	1.000

4.4 상관관계분석

상관관계분석은 측정변수간의 상관관계, 즉 상호관련성 여부 및 관련성 정도를 알고자 할 때 이용하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0.2 이하이면 상관관계가 없거나 무시해도 좋은 수준이며, 0.4 정도이면 약한 상관관계, 0.6 이상이면 강한 상관관계로 볼 수 있다(채서일, 2006).

본 연구에서는 측정된 연구변수간의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이 연구변수의 측정 항목사이의 상관관계를 정리하였다. 출력된 상관계수들을 살펴보면, 안정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의 Pearson의 상관계수는 .151로 상관성은 낮으나 p-값이 유의수준 5%하에서 유의적임을 볼 수 있다.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창업의지의 상관계수는 .542로 두 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창업지원프로그램 참가는 전반적으로 기술지향성을 제외한 유의확률이 유의적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에서 제시한 변수들 간 관계의 방향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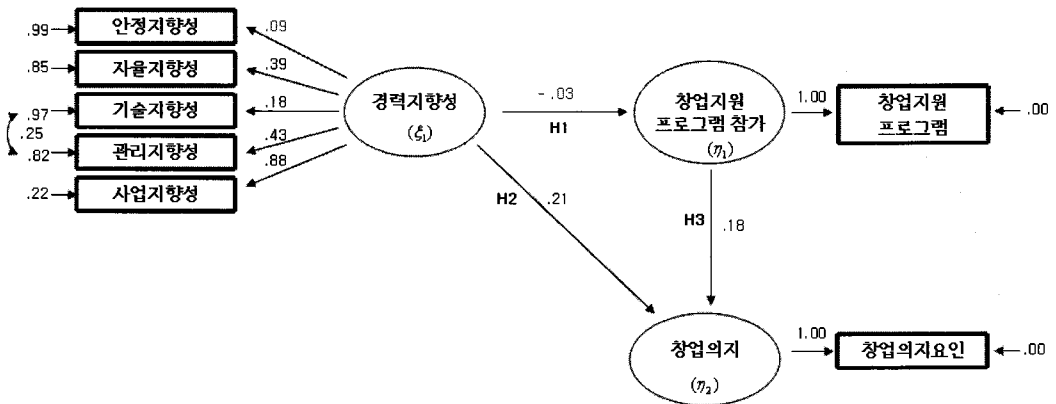
<표 7> 측정항목 측정계수

측정항목		A1	A2	A3	A4	A5	C1	D1	
A1	안정지향성	P	1	0.151	0.290	0.282	0.036	0.005	0.061
		Q		0.003	0.000	0.000	0.478	0.918	0.231
A2	자율지향성	P	0.151	1	0.271	0.244	0.343	0.212	0.166
		Q	0.003		0.000	0.000	0.000	0.000	0.001
A3	기술지향성	P	0.290	0.271	1	0.336	0.160	-0.011	0.079
		Q	0.000	0.000		0.000	0.001	0.825	0.120
A4	관리지향성	P	0.282	0.244	0.336	1	0.362	0.206	0.176
		Q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A5	사업지향성	P	0.036	0.343	0.160	0.362	1	0.554	0.377
		Q	0.478	0.000	0.001	0.000		0.000	0.000
C1	창업의지	P	0.005	0.212	-0.011	0.206	0.554	1	0.542
		Q	0.918	0.000	0.825	0.000	0.000		0.000
B1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가	P	0.061	0.166	0.079	0.176	0.377	0.542	1
		Q	0.231	0.001	0.120	0.001	0.000	0.000	

P=Pearson의 상관계수, Q=유의확률(양쪽)

4.5 연구모형의 경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연구모형의 구조경로 도형과 경로계수를 <그림 2>와 같이 제시하였다. 경력지향성 변수인 자율지향성, 기술지향성, 관리지향성, 사업지향성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안정지향성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창업지원프로그램 참가는 경력지향성 변수로부터 효과를 받고 있으나 영향력은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의지는 경력지향성 변수와 창업지원프로그램 참가는 효과를 받고 있으며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력지향성은 창업지원프로그램 참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창업의지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업지원프로그램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다.



<그림 2> 연구모형의 경로도형

4.6 잠재모형에 대한 효과 추정

창업지원프로그램 참가는 다음의 <표 8>과 같이 경력지향성 변수로부터 - .028 정도의 효과를 받고 있으나 영향력은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문화적요인 변수로부터 .628의 효과를 받고 있으며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의지는 경력지향성 변수로부터 .212 정도의 효과를 받고 있으며, 창업지원프로그램 참가 .181의 효과를 받고 있으며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잠재모형에 대한 효과 추정

결과변수	원인변수	직접효과(t-value)	간접효과(t-value)	총효과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가	경력지향성	-.028(-.271)	-	-.028
창업의지	창업지원프로그램 참가	.181(3.141)	-	.181
	경력지향성	.212(2.423)	-.005 (-.275)	.207

* 효과 추정치는 표준화 추정치임.

4.7 가설의 검증

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변수들 간의 경로계수와 고정지수(t-값)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 1의 “경력지향성은 창업지원프로그램 참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경로계수가 -.028로 나타났으며, t-값이 -.271로 1.96보다 작아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 가설과 일치하지 않았다.

가설 2의 “경력지향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경로계수가 .212로 나타났으며, t-값이 2.423으로 1.96보다 커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지지되었고 관계의 방향도 가설과 일치하였다.

가설 3의 “창업지원프로그램 참가는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경로계수가 .181로 나타났으며, t-값이 3.14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지지되었고 관계의 방향도 가설과 일치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 모형에서 설정한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가설검증

가설	경로	가설방향	계수추정치	t-값	검증결과
H1	경력지향성→창업지원프로그램 참가	(+)	-.028	-.271	×
H2	경력지향성→창업의지	(+)	.212	2.423	○
H3	창업지원프로그램 참가→창업의지	(+)	.181	3.141	○

○ : 가설 채택, × : 가설 기각, 계수추정치는 표준화계수임.

4.8 집단에 따른 비교분석

“중소기업청지원 창업강좌 개설 유무에 따라 창업의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와 “경상계열과 공학계열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서울소재 대학교의 대학생과 지방소재대학교의 대학생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라는 집단에 따른 비교분석 검증하기에 앞서 <표 10>과 같이 분산이 동질한지 아닌지를 알기위해 분산의 동질성 검정 결과이다. 분석에 사용할 설명변수가 모두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적이지 않게 나왔다. 즉, 귀무가설(분산이 동일하다.)을 채택할 수 있으므로 가설에 사용할 모든 문항이 분산이 동질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분산의 동질성 검정 결과

구 분	F-value	p-value
중소기업청지원 창업강좌 개설 유무	.001	.979
대학교 소재지(서울과 지방)	1.235	.267
전공계열(경상과 공학)	.836	.361

중소기업청지원 창업강좌 개설 유무에 따라 창업의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의 검증 결과는 <표 11>과 같이 중소기업청지원 창업강좌 개설대학교의 평균이 3.824이고 표준편차가 1.356인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창업강좌 미개설대학교의 평균은 3.592이고 표준편차가 1.320로 창업강좌를 개설한 학교의 창업의지가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t-값을 살펴보면 t-값이 1.720이고 이에 대응되는 p-값($Pr > |t|$)이 0.086이지만 유의수준 0.05하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즉, 창업강좌 개설 유무는 창업의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창업강좌를 지원받지 않는 대학도 창업강좌는 개설되어 있어 창업강좌에 대한 차별화가 없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표 11> 중소기업청지원 창업강좌 개설 유무에 따라 창업의지에 유의한 차이

구 분	N	MEAN(SD)	t-검정	Pr > t
중소기업청지원 창업강좌 개설	197	3.824(1.356)	1.720	.086
중소기업청지원 창업강좌 미개설	195	3.592(1.320)		

전공계열에 따른 창업의지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의 검증 결과는 <표 12>와 같이 나타났다. 경상계열의 평균이 3.877이고 표준편차가 1.357이며, 공학계열의 평균은 3.538, 표준편차가 1.313으로 나타나 경상계열의 학생들이 창업의지가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t-값을 살펴보면 t-값이 2.490이고 이에 대응되는 p-값($Pr > |t|$)이 .013이므로, 유의수준 0.05하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즉, 전공계열에 따라 창업의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12> 전공계열에 따른 창업의지의 유의한 차이

구 분	N	MEAN(SD)	t-검정	Pr > t
경상계열	200	3.877(1.357)	2.490	.013
공학계열	187	3.538(1.313)		

대학교의 소재지에 따른 창업의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의 검증 결과는 <표 13>과 같다. 지방소재대학교의 평균이 3.946이고 표준편차가 1.300이며, 서울소재대학교의 평균은 3.485, 표준편차가 1.348 인 것을 볼 수 있다. t-값을 살펴보면 t-값이 3.376이고 이에 대응되는 p-값($Pr > |t|$)이 .001이므로, 유의수준 0.05하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즉, 지방소재대학교의 학생들이 창업의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3> 대학교의 소재지에 따른 창업의지의 유의한 차이

구 분	N	MEAN(SD)	t-검정	Pr > t
지방소재	194	3.946(1.300)	3.376	.001
서울소재	198	3.485(1.348)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실증분석을 함으로써 어떠한 요인들이 향후 잠재적 창업자들(즉, 대학생들)의 창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론적으로 검토하며 가설 및 연구모형을 구축하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의 경력지향성, 사회문화적요인, 창업지원프로그램 참가, 창업의지 등에 대하여 신뢰도 및 타당성을 확보하였고, 연구모형 및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중공선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가설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지향성은 창업지원프로그램 참가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력지향성 중에서 자율·기술·관리·사업지향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안정지향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지원프로그램 참가는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에 따른 비교분석 결과인 첫째, 중소기업청 지원 창업강좌 개설 유무는 창업의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의 검증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창업강좌를 지원받지 않는 대학도 창업강좌는 개설되어 있어 창업강좌에 대한 차별화가 없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전공계열에 따른 창업의지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의 검증 결과는 공학계열의 학생들 보다 경상계열의 학생들이 창업의지가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전공계열에 따라 창업의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대학교의 소재지에 따른 창업의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의 검증 결과는 서울소재대학교 보다 지방소재대학교의 학생들이 창업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각 대학별로 차별화된 창업지원프로그램을 구상하여 대학생들이 유행에 휩싸여, 아니면 취업을 못하니까 창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경력지향성의 유형으로 선별된 대학생들이 집중적인 창업지원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창업동기부여를 받고 창업의지를 높여서 창업인재를 발굴, 이들이 성공적으로 창업을 하고 성공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자료를 축적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첫째, 잠재적 창업자인 대학생들이 조사대상이었기 때문에 실제 창업행동이 아닌 창업의지를 다루어서, 창업의지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궁극적으로 실전 창업과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창업지원프로그램에서 창업강좌와 창업동아리 그리고 창업보육센터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었

으나 창업경연대회, 창업자금, 창업정보센터, 창업자문단, 창업연구소, 창업한 졸업생 네트워크 등은 미비한 상태이다. 이는 교육적 측면에서의 창업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실질적인 창업으로 연결되지는 못하는 구조인 것이다. 실질적인 창업행동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창업자금을 비롯한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네트워킹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향후 연구과제로서 실질적인 창업과정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인 경력지향성과 대학별로 차별화되고 전문적인 창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계수 (2006). “Amos/Lisrel 이용 인과분석 연구방법론”, 서울, 도서출판 청람.
- 박시사 & 강성일 (2007). “개인특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제31권, 제2호(통권 60), 187-204.
- 배병렬 (2005). “LISREL 구조방정식 모델 -이해와 활용-”, 서울, 도서출판 청람.
- 윤방섭 (2004). “창업 의지의 결정요인: 개인특성 및 환경요인” 「산학경영연구」 제17권, 제2호, 89-105.
- 이지우 (2000). “개인특성과 창업의지 사이의 관계” 「중소기업연구」 제22권, 제1호, 121-146.
- 장대성 (2000). “경영 및 공학계열 대학생들의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 「산업연구」 제12권, 63-82.
- 정대용 (1999). “창업과 사회·문화 요인간의 관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국제경영연구」 제10권, 제1호, 59-85.
- Cooper, A. C., & Dunkelberg, W. C. (1987). Entrepreneurial research: Old questions, new answer, and methodological issues,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3(2), 49-64.
- Crant, J. M. (1996).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3), 42-49.
- Feldman, D. C. (1988). *Managing Careers and Organizations*. Glenview, IL.: Scott Foresman.
- Feldman, D. C. & Bolion, M. C. (2000). Career patterns of the self-employed: Career motivations and Career outcome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8(3), 53-67.
- Gist, M. E. (1987). Self-efficacy: Implications f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2, 472-485.
- Gnyawali, D. R., & Fogel. D. S. (1994). Environments for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Key dimensions and research implica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4), 43-62.
- Igbaria, M., Greenhaus, J. H., & Parasuraman, S. (1991). Career orientations

- of MIS employees: An empirical analysis. *MIS Quarterly*, 15, 151-169.
- Kolvereid, L. (1996). Organizational employment versus self-employment: Reasons for career choice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0(3), 23-31.
- Kolvereid, L. & Obloj, K. (1994). Entrepreneurship in Emerging versus Mature Economies: An Exploratory Survey,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12, 14-27.
- Schein, E. H. (1975). How career anchors hold executives to their career paths. *Personnel*, 52(3), 11-24.
- Schein, E. H. (1978). *Career Dynamics: Matching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Needs*. Reading, Mass.: Addison-Wesley.
- Schein, E. H. (1990). *Career Anchors : Discovering Your Real Values*. San Diago, Calif.: Pfeiffer and Company.
- Shapiro, A. (1982).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In C. Kent, D. Sexton and K. Vesper. eds., *The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72-90.
- Timmons, J. A. (1994, 1997). *New Venture Creation :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Irwin McGraw-Hill, Illinois, Fourth Edition, 1994. *Innovation and Change*, Vol.6, No.1, 5-20.
- U.S.News & World Report. (2008). 2008 Edition America's Best Colleges, Best Business Programs of Entrepreneurship, 112.
- Veciana, J. M., Alponente, M., & Urbano, D. (2005).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s entrepreneurship: a two countries compariso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 165-182.
- www.babson.edu

An Empirical Study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on Career Orientation and Entrepreneurial Support Programs

Yu, Yon-Ho* · Yang, Dong Woo**

Abstract

Theoretically, this study reviewed effects that career orientation and entrepreneurial support programs as entrepreneurial support program of participation hav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Based on this review, a research model was made. Then,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research hypotheses by classifying universities which establish entrepreneurship courses supported by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s of 2006) and ones which do not into Seoul and regions, and business department and engineering department.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areer orientation was not significant in terms of entrepreneurial support program of participation. Second, autonomy orientation, technical competence orientation, managerial competence orientation, and entrepreneurial creativity orientation out of career orientation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while security orientation resulted the sam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but statistically insignificant. Third, entrepreneurial support program of participation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Keywords: Entrepreneurial Intention, Career Orientation, Entrepreneurial Support Program

* top1234@empal.com

** dwyang@hoseo.edu